

## ‘취업의 기술’ vs ‘취업이 장난’

슈퍼인턴·해블라고·굿피플 등 붐몰  
유망직종 면접 팁·업무 소개 긍정적  
일각선 사회적 이슈 회화화 지적도

취업이나 직장생활을 주제로 한 ‘오피스 예능’이 쏟아지고 있다. 인턴이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현재 방송 중인 엠넷 ‘슈퍼인턴’, tvN ‘해블라고’, 3월 방송 예정인 채널A ‘굿피플’과 tvN ‘문제적 보스’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극심한 취업난 현상을 발 빠르게 반영하려는 예능프로그램의 포맷 변화 시도로 풀이된다.

‘슈퍼인턴’은 ‘3대 연예기획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JYP엔터테인먼트가 정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인턴십을 운영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아티스트를 위해 컨설팅을 하고, 이벤트에 유명인사들을 초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턴들의 모습은 연예기획사의 일상적 업무를 잘 몰랐던 시청자에게 신선함을 준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예인들이 한국조폐공사와 모 편의점 본사 등 공공기관과 기업의 면접을 거쳐



엠넷 ‘슈퍼인턴’, 채널A ‘굿피플’, tvN ‘문제적 보스’(왼쪽부터 순서대로)

신입사원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담은 ‘해블라고’는 독특한 면접 전형 등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채널A는 변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일정기간 인턴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굿피플’을 제작 중이다. tvN도 연기자 정준호, 가수 토니안 등 연예인 CEO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일상을 담은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 ‘문제적 보스’를 3월2일 내놓는다.



각 방송사들이 이처럼 잇따라 내놓는 ‘취업 예능’은 청년 실업률과 취업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청년 체감실업률이 23.2%까지 치솟았다.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며 시청자 시선을 붙잡으려는 의도이다. 이를 바라보는 시청자의 반응은 엇갈린다. 유망 직종 이면에 숨겨진 업무환경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눈여겨 볼 만한 면접 노하우 등을 소개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



적인 반응이 많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가벼운 시선으로 이를 담아내 심각한 사회적 이슈를 회화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누군가에게 절실한 문제를 단순한 웃음의 소재로만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연예인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일하는 과정 역시 작위적인 연출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4개월째 제작 중단 ‘사자’의 운명은

### 뉴스인사이드

제작사 “박해진 끝까지 출연해야”  
박해진 측 “계약기간 이미 끝나”

지난해 11월 제작이 중단된 박해진 주연 드라마 ‘사자’가 결국 해를 넘겨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자’는 지난해 1월 촬영을 시작했지만 연출자 도중 교체 등을 둘러싸고 박해진 측과 제작사 빅토리 콘텐츠(빅토리)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5월 제작이 중단됐다. 이후 양측은 10월 31일까지 촬영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제작은 순조롭지 못했다. 이에 박해진 측은 10월31일까지 촬영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더 이상 출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빅토리는 드라마가 완성될 때까지 출연한다는 합의서 조항을 들어 박해진이 주인공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은 현재까지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박해진

대해 스토리는 “투자비는 빅토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갈등 끝에 빅토리는 스토리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박해진이 자사의 또 다른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하고 출연료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속사인 마운틴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마운틴도 빅토리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민형사 고소했다.

### ●제작사 VS 박해진 측, 여전히 갈등

빅토리는 지난해 8월 말 ‘사자’ 촬영을 재개하면서 박해진 소속사인 마운틴무브먼트(마운틴)와 합의서를 작성해 상호 동의 아래 10월31일까지 촬영을 마치고 갔다. 마운틴은 이에 따라 박해진이 출연 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빅토리는 “합의서에 이 같은 일정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드라마의 실질적 제작 완료 시점까지 박해진이 참여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합의서에는 박해진의 소속사가 세운 드라마 제작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스토리)가 빅토리와 공동제작사로 이름을 올렸다. 1월 다시 제의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촬영 중단 기간 스토리가 받은 투자비를 빅토리가 수용하겠다는 조건도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빅토리는 스토리 측이 투자를 받았지만 실제 제작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자신들이 이 계약을 대신 진행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투자비는 부가 판권 등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받은 것인 만큼 박해진이 반드시 참여해 제작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 ●제작사 “어떻게든 ‘사자’ 완성할 것”

빅토리는 ‘사자’를 둘러싼 분쟁 속에서도 제작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16부작 가운데 절반가량 촬영을 마무리한 빅토리는 제작을 마쳐 방송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박해진이 촬영장에 복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적다. 현재 불거진 갈등이 이를 말해준다.

또 박해진 소속사 측은 “촬영을 재개한다 해도 출연자들과 제작진이 잘 꾸러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해 박해진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기다린 다른 출연자들을 설득하는 부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빅토리의 한 관계자는 19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촬영을 완료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촬영한 분량만으로 방송한 뒤 나머지 이야기를 시즌제로 이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역시 박해진의 출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현장.jpg

‘레고’로 돌아온 워너비

“다시 데뷔하는 기분!” 5인조 걸그룹 워너비가 2년 6개월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한 다. 이들은 19일 오후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네 번째 디지털 싱글 ‘레고’ 발표 기념 쇼케이스에서 “이젠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2014년 싱글 ‘마이 타입’으로 데뷔한 이들은 ‘렛츠고’의 줄임말인 ‘레고’처럼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진희 기자 kwangshin00@donga.com

## ‘수익률 -17.3%’ 2018 한국영화 교훈

‘-17.3%!’

2018년 한국영화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수치이다. “관습적 흥행코드로 인한 관객 피로감과 일률적인 배급 전략의 제로섬 게임화”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안긴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최근 내놓은 ‘2018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상업영화 40편의 평균 추정 수익률은 -17.3%였다. 2017년 18%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2012년 이후 흑자를 유지해온 기조가 크게 흔들렸다.

영진위는 그 주요 원인으로 “순제작비 100억 원 이상 고예산 영화들의 흥행 부진”을 꼽았다. “관습적인 흥행코드를 나열한 서사로 관객에게 피로감을 주며 외면 받았고, 성수기를 노린 일률적인 배급 전략이 제로섬 게임으로 치달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 치솟는 제작비 역시 적자의 또 다른 요인이다. 영진위는 지난해 개봉작 186편의 평균 총제작비가 26억8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000만 원 늘었고, 평균 순제작비 역시 2017년보다 9000만 원 증가한 20억 원이라고 밝혔다.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작품 40편의 평균 총제작비와 순제작

비 규모 역시 증가 추세이다.

반면 순제작비 30~50억 원 영화의 수익률은 1.6%, 50~80억 원 작품은 -1.1%였다. 이른바 ‘허리’를 구축하는 중저예산 영화와 중급 규모 영화가 전체 평균 수익률을 그나마 채워줬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38억 원의 ‘완벽한 타인’을 비롯해 ‘암수살인’, ‘그것만이 내 세상’, ‘탐정:리턴즈’ ‘너의 결혼식’ ‘지금 만나러 갑니다’ ‘목격자’ ‘리틀 포레스트’ 등 30~50억 원 순제작비 규모로 영화가 뚜렷한 흥행세를 그렸다. 이 같은 추세는 “총제작비 80~100억 원 미만의 작품이 전년도 보다 부진했고, 순제작비 30~50억 원 미만 영화 15편 중 4편이 손익분기점”을 넘긴 2017년 이은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스타급 배우와 감독 등을 기용해 대규모로 제작한 뒤 “일별 상영점유율 기준 1위 영화 평균 33%, 2위 20.7%, 3위 13.8%로 그 합이 67.5%”(위 자료)였을 만큼 성수기 스크린 “독과점”을 노리는 배급 및 흥행 전략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음을 드러낸다. 참신한 기획과 이야기의 규모에 걸맞은 제작 방식에 대한 영화계의 깊은 고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셈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해시태그 킷



리지의 겨울왕국

그야말로 ‘겨울왕국’이다. 가수 겸 연기자 리지(박수아)가 함박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갈대밭 사이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상큼하고 발랄한 매력을 드러냈다. 팬들은 “귀엽고 예뻐요” “눈의 여왕 같아요” 등 댓글로 리지를 응원했다.

#스포츠동아 #리지 #함박눈 #겨울왕국

## 어설픈 ‘아이템’에 주지훈 효과 잠잠

맥 끊는 연출·영성환 CG 흑역



주지훈

MBC 새 월화드라마 ‘아이템’에 비상이 걸렸다.

‘1000만 배우’로 거듭난 연기자 주지훈을 주연으로 내세워 거둔 화제몰이가 무색할 만큼 맥없는 완성도로 시청자를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템’은 MBC가 사전제작하며 오랜기간 준비한 야심작이다.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와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으로 흥행 ‘보존수표’가 된 주지훈이 4년 만에 선택한 안방극장 복귀작이란 점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또 OCN ‘구해줘! 호핑’을 받은 정이도 작가가 동명의 인기 웹툰을 드라마화해 기대감을 높였다. 연기자 김강우의 약역 변신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큰 걸까. 첫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이야기 흐름이 자꾸 끊기고, 연출도 어수선하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어설픈 CG도 시청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불거리는 많지만 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다수였다. 사전제작 드라마인 탓에 이같은 시청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개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관계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아직 방영 초반이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아이템’에 출연 중인 한 연기자의 소속사 관계자는 “각 인물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얹히는 시점인 4회부터 전가가 빨라져 초반보다는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기자들의 열연 역시 아직 드라마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게 한다는 평가다. 주지훈과 김강우의 긴장감 넘치는 연기가 드라마의 흡인력을 높인다는 시청자 반응이 적지 않다. 극중 프로파일러로 변신한 연기자 진세연도 합격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시청자들은 평했다. 유지혜 기자

편집 | 인도영·김형조 기자